

“러시아서 본 흑두루미 순천만서 다시 보니 친동생 찾은 것 같아요”

‘두루미 캠프’ 온 러 청소년들 색다른 감동

러시아 청소년들이 러시아 아무르 강 일대에서 사는 흑두루미의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월동지인 순천만을 찾았다.

지난달 28일 오후 흑두루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순천만 인근 평야.

‘2008 동아시아 청소년 두루미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오친 크리씨비!”(정말 예쁘다) 흑두루미캠프에 참여한 파란 눈의 러시아 남녀 학생 5명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망원경을 들여다 보다 감탄사를 연발했다.

‘2008 동아시아 청소년 두루미 캠프’는 환경운동연합, 순천시, 러시아 무라비오브카 공원 등이 주최해 지난 달 26일부터 6일간 순천시,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 3일째인 이날, 한국 학생 20명과 러시아 학생 5명은 3개조로 분산, 주제를 정한 뒤 철새를 관찰했다. 한국과 러시아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급격히 줄어든 위험요인’ ‘흑두루미의 주된 먹이’ ‘흑두루미의 하루 생활상’이라는 각각의 주제가 정해졌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번식지인 러시아 아무르 주에서 온 아나센코 갈리나(14)양은 “러시아에서도 매년 여름 무라비오브카 공원에서 열리는 흑두루미 행사에 참가해 보았지만 한국에서 본 흑두루미는 느낌이 달리요. 러시아에서 흑두루미는 주로 습지에 모여 사는데 순천만의 흑두루미는 눈밭에서 노닐며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니 색다른 감동을 느꼈어요.”



식지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아무르강 일대, 월동지는 순천만이다. 러시아에 있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와서 겨울을 보낸다. 이번에는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음 여름 흑두루미 최대 번식지인 러시아 아무르주 무라비오카 흑두루미 축제 때는 한국의 학생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무라비오브카 공원 카라디나 마리나(여·30) 사무국장은 “러시아는 환경이 많이 오염돼 머임감이 매우 적은데 비해 순천만은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많아 흑두루미가 살기 매우 좋은 곳이다”며 “작년 해 여름 러시아에서 본 흑두루미를 한국에서 보니까 마치 친동생을 찾은 기분”이라고 웃었다.

순천만은 람사르 협약에 가입돼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중요한 자연문화자산이다. 흑두루미의 번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달 28일 ‘2008 동아시아 청소년 두루미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만을 찾은 러시아 학생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흑두루미를 관찰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일까지 순천만과 강원도 철원군 일대를 돌며 흑두루미 등 철새를 탐조하게 된다.

▲**흑두루미**=두루미과의 새로 몸의 길이는 76cm 정도이며, 머리는 흰색, 몸은 검은색을 띠 회색이다. 이마는 검은색이며 머리 꼭대기에는 붉은 색 반점이 있다.

흑두루미는 겨울 철새로 동부 시베리아, 만주, 몽골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찾아오는 철새로 순천만에서 약 100~120마리, 충남 천수만 지역에서 약 50~60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다. 천연 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교사 수백명 내년 대학 강단 선다

내년부터 현직 초·중등교사 수백 명이 대학 강단에 선다.

전국 교육대학원장협의회 오성삼(건국대) 회장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에 소속된 126개 교육대학원의 원장들이 현직 초·중등 교원들을 내년부터 겸임교수로 채용하기로 최근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2009년 1학기부터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전면 개편돼 교과지도,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

술, 교육방법론 등 현장성이짙은 과목들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조치다.

오 회장은 “기존 교수들이 이론에 강하지만 실무가 낮설어 신설 과목들을 버거워 한다”며 “그간 교육대학원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현장을 통한 시했다는 성격의 뜻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겸임교수 후보군(풀)을 만들기 위해 일선

126개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채용키로

학교에 대한 공지를 거쳐 3월부터 협의회 홈페이지로 박사학위를 지원한 현직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각 교육대학원은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에서 드러난 적정 교사들과 교육부가 선발한 12개 교과 180명의 수석교사들과 접촉, 본격적인 채용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겸임교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임용·임용되는 교원이다. /연합뉴스

광주 YMCA 이사장 흥공희씨 선출

홍공희(64·사진) 광주 YMCA 이사가 지난달 29일 이사장에 선출됐다.

광주 YMCA는 최근 임원 선거에서 흥 이사가 모두 26표 중 과반수 이상 표를 얻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임 흥 이사장은 “올해부터 단체와 차별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내적인 성장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 이사장은 지난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1962년부터 YMCA와 인연을 맺어 광주 YMCA 이사,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이달 초 있을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VOD로 배운다

전남대 제작…을부터 원격강좌 교재로

대학에서 배우는 5·18 교재가 다양화하고 있다.

전남대 교육발전연구원(원장 이지현)은 사회대 조정관(정치외교과), 인문대 박구웅(철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004년 개설된 교양과목 ‘5·18과 민주인권’을 VOD형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20~30분 분량, 43개 강좌로 구성된 이 동영상은 조 교수의 강의와 다양한 영상 자료가 포함됐으며, 올해 1학기부터 e-러닝 원격강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경북대, 방통대 등 전국 7개 대학이 함께 하는 한국가상캠퍼스에도 제공돼 대학생들이 5·18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대 최영태 인문대학장 등 전남대 및 조선대 교수 10여명은 최근 5·18기념제단의 지원을 받아 5·18 교양과목 강의 ‘5·18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의 나라’를 출간했다.

교재에는 5·18의 배경과 전개과정, 5·18이 한국 및 아시아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VOD 작업에 강사로 참여한 조 교수는 “VOD 콘텐츠 개발로 온라인 강의가 가능해져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5·18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영어로 제작해 전 세계 대학생에게 5·18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승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족

▲김소자(전 주월중 교장)씨 차남 애리(광주매일신문 사진부 기자)군 어치현씨 장녀 승이양=1일(토) 낮 12시40분 오페라하우스웨딩홀 3층 그랜드홀.

▲최숙주(곡성군 기획예산실장)씨 장남 승철군 이광렬씨 장녀 혜진양=1일(토) 오후 2시30분 전남대 여수 캠퍼스 청람홀.

▲문형섭(전남대 법대 교수)씨 아들 성환군 백승호씨 딸 은실양=2일(일) 낮 1시30분 예술루션웨딩홀 3층 컨벤션홀.

▲이도현씨 장남 건형군 김옥봉(광주시 감사관)씨 장녀 선영양=1일(토) 오후 2시 송정중앙교회 3층 본당.

▲구창우(금호고속)씨 차남 재민군 김병오(전 광주일보)씨 차녀 상미양=2일(일) 낮 1시 교원공제회관 3층 예식홀.

지영양=2일(일) 낮 12시30분 신양파크호텔.

▲윤경순(세무법인)씨 장남 김길호군 김삼금씨 동생 정화양=1일(토) 오전 10시30분 보성 벌교 영송교회.

▲배승임씨 차남 영두군 양동구(전 대현통운)씨 장녀 하실양=1일(토) 낮 1시30분 삼영에식장 1층 컨벤션홀.

부음

▲안병철씨 별세 상수(택시기사)·진현(인력대기사)·회수씨 부친상 박상곤(자영업)씨 빙부상=발인 1일(토) 송정장례식장 3호. 941-4400.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본원출신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개강 첫권도 시작한

3월 3일 국비 무료 교육보합가입금지 수강료 환급

2주마다 학점증

주택관리사 첫전도 개강 : 3월 3일 오전반 아침반

3월 3일 국비 무료 교육보합가입금지 수강료 환급

2주마다 학점증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2주마다 학점증

본원 출신 송은영님 평균 96.7

선거유세 영상 차량 접수중

선명한 LED 영상 홍보 차량

(주)트리케이션 T. 232-7777

